



팬데믹 시대 기업휴지 리스크와 캡티브 보험의 활용

김윤진 연구원

코로나19를 계기로 보험사를 통한 기업휴지 위험 관리의 한계가 드러났고, 미국 기업은 그 대안으로 캡티브 보험에 주목함. 캡티브 보험은 '팬데믹으로 인한 기업휴지 위험' 인수가 가능하며, 향후 또 다른 팬데믹으로 인한 조업중단 손실에 대비하려는 기업들의 캡티브 보험 활용 증가가 예상됨. 한편,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기업들은 캡티브 보험과 같은 다양한 대체 위험관리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확산 이후 캡티브 보험사를 설립하는 미국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캡티브 보험이 '팬데믹으로 인한 기업휴지 위험' 관리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임

- 캡티브 보험사는 모기업에 소속된 자회사 형태의 보험회사로 모기업 보험을 인수하며, 보통 모기업이 보유한 특정 위험을 보장해 줄 보험사를 외부에서 찾지 못하거나, 캡티브 보험이 기존 보험사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모기업 위험을 인수할 수 있을 경우 캡티브 보험을 활용함¹⁾
- 캡티브 보험 관리 전문 회사인 Marsh에 따르면, 2020년 1~7월 동안 76개의 새로운 캡티브 보험사가 설립되었으며 이는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²⁾
 - Marsh는 캡티브 보험사가 급증한 원인으로 보험시장의 보험료 상승과 코로나19로 야기된 전반적인 위험 보장의 불확실성을 꼽음
- 특히, 미국 전역의 기업들이 코로나19 확산 시기 조업중단 손해를 민간 보험사로부터 보장받지 못하게 되면서, '팬데믹으로 인한 기업휴지 위험' 관리의 대안으로서 캡티브 보험에 주목함³⁾

■ 코로나19 확산 시 미국 보험사가 판매한 기업휴지보험의 팬데믹 손실보장 관련 소송이 급증한 바 있고, 정부차원에

1) 오평석·김평원·안철경·조혜원(1996. 12), 『캡티브 보험사 설립에 관한 연구』, 조사보고서, 보험연구원·Investopedia; NAIC 웹사이트 내 'Captive Insurance' 검색 결과 내용을 종합. 현재 'Fortune 500' 기업 대부분이 캡티브 보험사를 소유함
 2) A. M. Best(2020. 10), "Captive Markets: News of the Alternative Risk Markets"
 3) A. M. Best(2020. 6), "Post-Covid19, Some businesses may look to captives for BI solutions, Observers say"

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을 강제하는 법안을 마련하였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팬데믹으로 인한 기업 휴지 위험’ 관리를 위한 대안이 요구됨

- 일반적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기업휴지 손실은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포함되는데, 약관 표현 해석의 차이로 인한 면책사항 해당 여부 등이 쟁점이 되어 미국 연방법원에 약 100건 이상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이 제기됨⁴⁾
 - ‘물적 손해’ 발생 인정 기준, 면책사항으로 감염병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있지 않은 경우, 물적 손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보험상품의 경우의 담보위험 범위에 대하여 논쟁이 있음
- 미국 정부는 손해보험사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조업중단 보상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이는 보험사의 재무 부담을 늘려 지급능력위기(Insolvency)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미국 손해보험사의 잉여자본은 8,000억 달러인 반면, 직원 5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조업중단 손해를 보상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한 달에 9,000억 달러로 추산됨⁵⁾
- 또한, 기업휴지보험은 사고 발생 빈도는 낮으나 사고 발생 시 손해규모가 크고, 기업마다 위험요인 및 보장수요가 동질적이지 않아 보험사 상품을 통한 기업휴지 위험 보장에 한계가 있어⁶⁾, ‘팬데믹으로 인한 기업 휴지 위험’에 기업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이 요구됨

■ 코로나19 이후 기업휴지 관련 캡티브 보험의 성장이 예상되나 캡티브 보험사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업의 보장공백은 여전하기 때문에, 기업은 위험 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체수단(Alternative Risk Financing)⁷⁾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Marsh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팬데믹에 따른 조업중단손해에 대한 기업들의 보장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2019년부터 시작된 기업휴지 관련 캡티브 보험의 성장세가 코로나19 이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
 - Marsh가 관리 중인 공급망 폐쇄 및 기업휴지 관련 캡티브의 2019년(2018년 대비) 수입보험료가 평균 283% 증가하며 큰 성장세를 보임⁸⁾
- 하지만 영세한 기업은 자본금 및 비용문제로 캡티브 보험사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여전히 기업휴지 손실에 대한 보장공백을 해소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캡티브 보험은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하며, 기업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캡티브 보험과 같은 대체수단(Alternative Risk Financing)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kiri**

4) 손민숙(2020. 7), 「기업휴지보험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해외 소송 쟁점 및 현황」,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5) Financial Times(2020. 3), “US legal battle looms over coronavirus insurance payouts”

6) 송운아(2020. 3), 「기업의 조업중단리스크 보장 현황과 과제」,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7) 기업의 위험 관리를 위한 ‘리스크 재무’ 수단에는 위험전가(Risk Transfer)와 위험보유(Risk Retention)가 있는데, 캡티브 보험은 ‘대체 위험전가(Alternative Risk Transfer)’ 방법 중 하나임

8) Marsh(2020. 9), “Captives offer value in uncertain times: Effective tools to address pandemic and other risks”